

엔딩 A-1

너희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근처에 사는 해양 연구자에게 연락을 했다.
잠시 후, 본래 목표였던 선박은 예정대로 항구를 떠나 출항한다. 그 배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보요원들이 GPS의 위치와 【감정사】…… 아니, 【랫테일】을 찾고 있을 것이다.

너희는 육지에 남아 또 하나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약 【랫테일】이 GPS의 존재를 눈치챘다면, 그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는 언제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인물이다.
만약 이 추리가 빗나가 그가 배 위에 있다면, 분명 어딘가의 정보기관이 【랫테일】을 붙잡았을 것이다.

너희는 차를 타고 이동해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방파제로 향했다.
조금 전 연락했던 해양 연구자로부터 이 일대의 조류 흐름에 대해 들은 덕분이다. 항구 쪽에서 흘러온 조류는 기세를 더해 이 방파제에 부딪히도록 되어 있었다.

너희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바다 표면을 바라본다.
잠시 그렇게 서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바닷속에서, 흠뻑 젖은 【감정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감정사】는 너희를 발견하자 헤엄쳐 방파제 가장자리까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선글라스는 파도에 휩쓸려간 듯 쓰고 있지 않았다.

“바다에서 좀 끌어 올려주겠어? 이 근처는 발판이 안 좋아서.”

【감정사】가 그렇게 말하자, 너희 중 한 명이 손을 내밀었고 그는 순순히 그 손을 잡고 육지로 올라왔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는 기쁜 듯 자신의 오른쪽 눈을 가리키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개의 눈동자’는 가짜일지도 몰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너희는 즉시 “그럴 리 없어”라고 대답했다.

【감정사】는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무지개의 눈동자’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고 단언한 것이 신기한 듯 보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오른쪽 눈에 손가락을 넣어 눈알을…… 아니, ‘무지개의 눈동자’를 꺼내 들고 그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작게 떨었다.

그는 바다 위로 내밀었던 자신의 오른쪽 눈이 태양빛을 받아 일곱 빛깔로 빛나던 모습을 떠올리며, 참지 못하고…… 결국 크게 웃어버렸다.

END

(이 PDF를 닫고, 「진행」을 클릭해 주세요.)